

# “이념편향 종식” “친일·독재 미화”... 사생결단 프레임 대결

## 불 붙은 여야 '교과서 전쟁'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12일 발표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념 대결과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 사생결단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까지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정감사 후 예산·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할 정기국회는 파행과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여론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현행 집권정 국사 교과서를 '친북 숙주'라고 규정하고 나섰고, 새정치연합은 국정 체제로의 개편을 '친일·독재 미화',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나서는 등 프레임 대결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오후 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예정 고시를 발표하자 새누리당 김경우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현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에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임회의에서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 사례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정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새로운 국정 국사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는 한편 이번 주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공청회도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붙을 방침을 내걸었다.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대부분 특정 학교나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좌편향 교과서가 진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비판했다.

## 새누리 '올바른 역사교과서' 명명

### 새정치 1인시위·장외투쟁 나서

### 예산 심의 정기국회 파행 불가피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시도가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고시를 철회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어 채택한 '친일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을 불모삼아 나라의 희망에 족쇄를 걸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박근혜정부는 결코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친일 독재후손들의 역사왜곡과 친일 독재 미화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오는 20일 확정고시를 앞두고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이어 이날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13일부터 문 대표를 필두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행정예고 기간 '의견 10만 건 접수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행정부의 고시 중지 요구 가져본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이 문제를 의제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2+2 공개토론'을 하고자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즉각 거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친일교과서 국정화 반대 규탄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계 반발... 집필진 구성부터 진통

### 집필기간 1년 불과... 졸속·부실 우려

## 국정화 작업 '산넘어 산'

교육부가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기로 확정하면서 국정화 작업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교과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계와 교육계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센 만큼 2017년부터 학교 현장에 국정교과서가 안착하기까지는 협로가 예상된다.

◇ 집필기간 1년... 집필진 및 편찬심의회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교육부는 이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 20여 일이고 국·검·인정 구분안은 내달 5일 고시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지만 정부가 야당, 학계, 교육계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화를 결정한 만큼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국사편찬위원회가 11월 중순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국·검·인정 교과서 집필은 11월 말 시작된다. 교과서 집필기간은 내년 11월 말까지 1년 동안 진행되므로 충분하다는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명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 개발에 다양한 전문가

를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집필진에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경제 전문가도 참여하게 하고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교육·국어·헌법학자, 교사, 학부모 등으로 다양하게 꾸리겠다는 것이다.

내년 12월에는 집필된 교과서 감수가 시작된다. 전문기관의 감수를 거친 심의본이 나오면 인터넷에 공개되고 교사연구회 및 전문가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에 보급된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까지 난재 많아=국정 교과서는 집필부터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우선 집필진을 구성하는데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집필진을 어렵게 꾸리더라도 진보와 보수 학자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또 다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에서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개발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 현장의 반응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정권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국정 교과서가 보급되면 무조건 써야 하지만 교사들이 인정교과서나 보조교재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 교과서가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외면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 독재국가·후진국 '국정'... 대부분 선진국은 검·인정제

## 세계 각국 교과서 발행체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다른 나라의 교과서 발행 체제에도 관심이 간다. 보통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 등 4가지로 나뉜다. 대통령령인 '규정'에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를 말한다. 학교는 국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한가지 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교육부의 검정 기준에 따라 개발하고 검정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정 교과서보다 국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교과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

를 가리킨다.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 기관의 검·인정 절차 없이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라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정부가 발행한다고 소개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대학교수 시절인 2009년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과서 검정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도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초특가 일본여행

##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459,000원 / 54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리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키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도리이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송목, 다카부타이 ▶ 호텔(기타큐슈 1급호텔)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시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부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트로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4일 64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리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키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도리이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송목, 다카부타이 ▶ 전통 온천호텔 또는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온천욕

**2일차** 일본 유신의 고장! "무사의 거리 요시다 쇼인의 신사" ▶ 다리교각과 바다 아름다운 "즈노시마등대" 자유시간 ▶ 히노야마 전망대 관광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시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부루 ▶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트로 ▶ 자연사박물관 관광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4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